노년기 인권과 인공지능:

장수 시대의 현실에 대한 규범적 준비

2026년 8월

---

1. 서론

인공지능(AI)은 사회적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 방식을 급격히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권적 과제를 제기한다. AI는 보건의료 개선, 접근성 향상, 소통 강화,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전 과정에 걸친 자립성 제고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 AI 기반 의사결정이 확대됨에 따라 평등, 자율성, 사생활 보호, 참여, 존엄성, 자기결정권 및 인간적 판단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 AI와 노인에 관한 논의는 연령 차별, 사생활 침해, 디지털 소외,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특정 응용 분야나 위험 요소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이슈는 중요하나, AI가 노년의 삶 전체에 가져오는 광범위한 변화를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한다. AI가 주거, 노동, 교육, 돌봄, 사회 참여 등 일상 환경에 깊이 통합됨에 따라, 노인이 기존의 인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며 실현하는 맥락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기존 인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AI 문제는 기술의 개발·적용·거버넌스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해석과 적용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제를 두 가지 보완적 단계를 통해 검토한다. 첫번째는 노년의 4가지 인간적·사회적 현실 검토: 노년의 다원성;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삶의 궤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각 현실 영역에서 AI가 인권 실현의 맥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분석적 틀을 제공함). 두번째는 5개 국제 및 지역 AI 규범/지침 검토: 제시된 규범적 토대가 상기 4가지 현실에서 제기되는 인권적 질문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 분석한다.

분석 대상 5개 국제·지역 AI 규범:

-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유럽의회: AI·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아프리카연합: 대륙 AI 전략 (Contin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 아세안: AI 거버넌스 및 윤리 가이드 (Guide on AI Governance and Ethics)

이들 규범은 목적, 법적 지위, 지리적 적용 범위 및 AI 거버넌스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분석은 개별 규범의 우열을 가리거나 모든 규범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규범이 제공하는 규범적 토대와, 이러한 토대를 노년의 4가지 현실에 대조하여 검토할 때 도출되는 과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교 분석 결과, 해당 규범들이 4가지 현실에서 제기되는 인권적 질문에 부응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5가지 주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인권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노인 관련 AI의 개발·이행·거버넌스에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며 결론을 맺는다.

2. AI와 노인의 현실

AI는 개별 기술이나 서비스를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연장된 삶의 과정에서 노인이 자신의 인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며 실현하는 맥락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AI 응용 사례를 넘어 AI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인간적·사회적 현실을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맥락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서 4가지 현실을 제시한다. 이들 현실이 새로운 인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인권이 반드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맥락을 명확히 보여준다. 각 현실은 인간적·사회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AI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에 따라 도출되는 인권적 질문을 식별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현실들은 이어지는 비교 분석을 위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2.1 현실 1 – 노년의 다원성

a. **인간적·사회적 현실**:

노인 집단은 동질한 집단이 아니다. 노년기는 건강, 능력, 문화, 성별, 소득, 교육,

지리적 여건, 언어, 디지털 활용 능력, 가족 환경, 삶의 경험 및 개인적 지향점에 있어 상당한 다원성을 포괄한다. 또한 노년은 연령 자체에 따른 다원성도 반영한다. 같은 연령대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듯이, 60대의 경험과 우선순위는 80대나 100대의 경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다원성은 교차성을 띤다. 서로 다른 특성, 환경 및 축적된 삶의 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각 개인이 노년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의 삶의 방식, 이용 가능한 기회, 직면하는 장벽, 그리고 이들이 내리는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만으로 필요, 선호, 능력을 단정하기보다 이러한 다원성을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b. AI가 변화시키는 것:

인공지능은 보건의료, 금융 서비스, 고용, 공공행정, 소통 및 일상 기술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과 서비스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맞춤화하며, 인권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AI는 데이터에서 도출된 패턴, 범주 및 가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AI 시스템이 노인의 다원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의도치 않게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개별적 환경을 간과하고, 연령이나 기타 특성에 기반한 단순화된 가정을 바탕으로 복잡한 삶을 축소 해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AI가 노인을 지원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노인이 인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며 실현하는 다원성을 AI가 인식할 수 있는가이다.

c. 구체적 사례:

동일한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80세 노인 100명을 가정해 보자. 이들은 나이라는 정량적 연령은 공유하지만, 그 외에 추정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 이들은 건강, 능력, 성별, 문화, 언어, 교육, 소득, 지리적 여건, 디지털 활용 능력, 가족 환경, 관계 및 지향점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들의 노년 경험은 교차성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이러한 특성과 환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회, 장벽, 차별 경험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80세에 이르기까지 각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삶의 경험, 즉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형성해 온 서로 다른 경력, 관계, 기회, 불이익, 선택 및

경험을 가지고 온다.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 지원, 서비스 제공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과 범주를 식별한다. 이러한 패턴은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맞춤화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패턴은 차이점을 가릴 수도 있다.

AI 시스템이 정량적 연령이나 노년과 관련된 기타 특성을 사람들의 필요, 능력, 선호를 추론하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취급한다면,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개별 주체의 다원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100명 모두 80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100가지 서로 다른 삶을 거쳐 80세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적 과제는 AI가 노인의 복잡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주로 단순화하기보다, 이러한 다원성을 인식할 수 있느냐에 있다.

d. 인권적 목표:

인권 실현에 있어 노인의 다원성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e. 인권적 시사점:

AI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접근성을 향상하며 개별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인권 실현을 강화할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적극 권장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다원성은 동일한 AI 시스템, 서비스, 접근 방식이라도 개개인에게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 능력, 문화, 성별, 소득, 교육, 지리적 여건, 언어, 디지털 활용 능력, 가족 환경, 관계, 축적된 삶의 경험 및 지향점의 차이가 상호작용하여 AI가 경험되는 방식과 AI가 인권 실현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모두 결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인권적 접근 방식은 연령뿐만 아니라 노년 내부의 다원성과 서로 다른 특성 및 환경의 교차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포괄적인 범주나 가정에 의존하는 AI 시스템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별적 환경을 간과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재현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AI는 노인의 다원성을 인식하고, 연령이나 기타 특성만으로 필요, 선호, 능력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지양하며, 기술이 삶에 통합되는 방식에 대한 의미 있는 선택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행·활용되어야 한다.

f. 해석적 질문:

AI가 노인의 다원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g. 성찰:

노인의 다원성은 AI를 단순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AI는 노인이 살아가고, 참여하며, 인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환경과 경험, 방식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2.2 현실 2 –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삶의 궤적

a. 인간적·사회적 현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장된 삶은 지속적인 학습, 노동, 참여, 기여 및 개인적 자아실현의 기회를 창출한다. 이는 또한 노인이 노년기 전반에 걸쳐 다수의 삶의 전환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신체적·감각적·인지적 능력의 변화를 훨씬 뛰어넘는다. 여기에는 변화하는 가족 내 역할, 관계, 지향점, 우선순위, 지원 필요성, 주거 환경 및 지역사회 삶에 대한 참여가 포함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삶의 궤적은 선형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일부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지만, 다른 일부는 질병, 장애, 사별, 경제적 환경 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노인은 동일한 인권 주체로 남는다. 따라서 과제는 연장된 삶 속에서 궤적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지속적인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b. AI가 변화시키는 것:

인공지능은 시간에 따른 패턴을 식별하고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개발·이행·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종단적 데이터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특히 AI가 변화하는 임상 정보를 분석하여 진단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지원 필요성을 예측하며 개입을 맞춤화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교육, 고용, 금융 서비스, 공공행정 및 보조공학 기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점점 더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연장된 삶

의 전 과정에서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창출한다.

그러나 AI에 정보를 제공하는 종단적 데이터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데이터는 변화하는 건강 및 기능적 능력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데이터셋은 노동, 학습 또는 서비스 이용의 특정 측면만을 포착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의 삶의 특정 차원 내에서 패턴과 변화를 식별하는 AI의 능력을 향상하지만, 노인이 인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며 실현하는 광범위한 삶의 궤적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이해만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연장된 삶의 변화하는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데이터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궤적을 형성하는 삶의 경험, 지향점, 우려 사항 및 목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c. **구체적 사례**:

70세의 나이로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한 여성을 가정해 보자. 퇴직은 그녀의 연장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환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녀는 AI 기반 학습 및 번역 도구를 활용하여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80대 초반, 배우자의 사망으로 그녀의 환경은 예상치 못하게 변화한다. 그녀의 우선순위, 인간관계 및 일상생활이 바뀐다. AI 기반 서비스는 그녀가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85세가 된 그녀는 수년 전에 시작한 대학 학위 과정을 마친다. 90대에 이르러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글쓰기와 이동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AI 기반 접근성 및 소통 도구는 그녀가 일하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방식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1세가 되자 그녀의 환경은 다시 한번 변화한다. 삶의 일부 영역에서는 더 큰 지원이 필요한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젊은이들을 멘토링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수십 년에 걸쳐 AI는 건강 정보, 교육 기록, 서비스 이용 및 기타 형태의 종단적 데이터를 통해 그녀의 삶의 서로 다른 차원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상세해질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전환이 그녀에게 갖는 의미, 그녀가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 또는 그녀가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녀의 환경은 변화한다. 그녀의 지향점도 변화한다. 그녀의 역할도 변화한다. 그녀의 능력과 지원 필요성도 변화한다. 그러나 그녀의 권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연장된 삶을 이해하기 위해 종단적 데이터 이상의 것이 필요한 이유

이다. 여기에는 '종단적 인간 경험', 즉 오직 당사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삶의 경험, 우려 사항, 선호, 지향점 및 목표가 함께 요구된다.

d. **인권적 목표**:

연장된 삶 속에서 궤적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지속적인 실현을 보장한다.

e. **인권적 시사점**:

AI는 능력의 변화를 식별하고 변화하는 지원 필요성을 예측하도록 돕는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진전이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은 노인의 삶의 보다 광범위한 궤적을 통해 경험된다. 건강, 기능 또는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종단적 데이터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변화하는 지향점, 인간관계, 참여, 개인적 목표, 또는 노인이 노년의 다양한 단계에 부여하는 의미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권적 접근 방식은 AI에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의 범주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문제가 아니다. 종단적 인간 경험 자체가 필수적인 지식원임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노인은 AI 개발 및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의 경험, 우려 사항, 지향점 및 목표를 반영함으로써, 인권이 경험되고 행사되는 변화하는 궤적에 대해 AI 개발·이행·거버넌스가 더욱 정교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따라 AI는 데이터만으로 대변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AI가 인권 실현을 지원하는 방식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노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행·활용되어야 한다.

f. **해석적 질문**:

연장된 삶 속에서 궤적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AI 환경에서 인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g. **성찰**:

연장된 삶은 단순히 변화하는 능력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연장된 삶은 변화하는 환경, 관계, 지향점, 역할 및 지원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는 변화하는 궤적으로 규정된다.

AI는 이러한 궤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종단적 데이터만

으로는 그 완전한 인간적 의미를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적 해석은 변화의 패턴뿐만 아니라,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실현하는 '변화하는 삶의 경험'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2.3 현실 3 –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a. 인간적·사회적 현실:

지원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일생 동안 사람들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전문가, 그리고 점점 더 기술로부터 지원을 주고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지원의 유형과 강도는 변할 수 있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인격성을 훼손하거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노인의 역할을 축소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노인은 소통, 이동, 보건의료, 의사결정,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은 단순히 지원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인권은 노인을 주요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동시에, 지원이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노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b. AI가 변화시키는 것:

인공지능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일부로서 점점 더 많이 개발·이행·활용되고 있다. AI는 소통을 돕고, 접근성을 향상하며, 기억을 지원하고, 학습을 맞춤화하며, 변화하는 지원 필요성을 식별하고,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노인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노인이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더 큰 자립성, 참여 및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 실현을 강화할 상당한 기회를 창출한다.

동시에 AI는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응답을 자동화하고, 개별 주체를 대신해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점점 더 갖추어가고 있다. AI가 지원 시스템 내에 더욱 깊이 통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인권적 질문이 제기된다.

"AI는 노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행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노인의 의사를 점차 대체하기 시작하는가?"

c. 구체적 사례:

초기 인지 기능 변화를 겪고 있는 한 노인을 가정해 보자. AI 비서는 치료 옵션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진료 팀을 만나기 전에 묻고자 하는 질문을 상기시켜 주며, 선호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진료 예약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가족 회의 중에 AI는 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견해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중심에 유지되도록 도움으로써 소통을 지원한다. 여기서 AI는 노인이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율성을 지원한다.

이제 동일한 기술이 다르게 진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AI는 노인과 대화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상의 없이 예측된 위험을 바탕으로 일상을 조정하며, 노인 본인보다 간병인에게 권고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비중을 늘려간다. 가족들은 노인에게 의사를 묻는 대신 AI의 권고사항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기술은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에서 점점 더 배제된다.

지원이 대체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적 질문은 단순히 AI가 지원을 제공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그 지원이 노인으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받을 수 있는—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중심에 선—권리 주체로 남아있게 하는가이다.

d. 인권적 목표:

AI 기반 지원이 자율성을 강화하고, 노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인권적 시사점:

AI는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소통, 접근성, 의사결정 지원 및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인권 실현을 강화할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적극 권장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이 노인 자신의 목소리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참여를 대체하는 정당화 사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인권은 노인이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요구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가족, 전문가 또는 간병인이 참여하더라도 노인은 결정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관련된 인권적 질문은 AI와 이를 둘러싼 지원 환경이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중심에 서는 권리 주체로 남아있게 하는가이다. 이에 따

라 AI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며, 의미 있는 참여를 보존하고, 지원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노인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행·활용되어야 한다.

f. 해석적 질문:

AI가 활용될 때 노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g. 성찰:

AI는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과제는 AI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지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 인권은 노인의 의사를 점차 대체하는 지원이 아니라, 노인의 의사와 선호가 존중받는 가운데 노인의 이해·결정·참여 능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요구한다.

2.4 현실 4 –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a. 인간적·사회적 현실:

연장된 삶은 과제뿐만 아니라 기회도 함께 창출한다. 노인은 노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고, 창작하며, 일하고, 자원봉사하고, 멘토링하며, 혁신하고, 타인을 돌보고, 시민사회 삶에 참여하며, 개인적 목표를 재정의한다. 이들의 지향점과 기여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점점 더 가치를 더해가는 지식, 경험 및 통찰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권은 단순히 노인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인권은 노인이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기여하며,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실현된다.

b. AI가 변화시키는 것:

인공지능은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개발·이행·활용되고 있다. AI는 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창의성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며, 과학적 발견을 촉진하고, 시민 참여를 도우며, 지리적·언어적·신체적 한계를 초월하는 기회와 노인을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노인이 단순히 사회에 계속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이전에는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새

로운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AI는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알고리즘의 편향, 비접근적 설계,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연령에 기반한 가정은 고용, 교육, 리더십, 혁신 및 참여의 기회를 의도치 않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적 과제는 단순히 AI가 기회를 창출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AI가 노인이 참여하고, 자신의 지향점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는가이다.

c. **구체적 사례**:

평생 연안 생태계를 연구해 온 70대 초반의 해양학자를 가정해 보자. 그녀는 생성형 AI, 위성 영상 및 환경 모델링을 활용해 수십 년간 축적한 개인적 관측 데이터와 전 세계 환경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전 세계 정부와 연안 지역사회가 채택한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셋에서 패턴을 빠르게 식별하고, 미래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며, 과학적 발견을 실용적인 정책 대안으로 변환한다.

AI가 없었다면 수십 년간의 관측 기록을 방대한 글로벌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고 이러한 규모로 영향을 모델링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다. AI를 통해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새로운 분석 역량과 결합하여, 그녀가 하는 기여의 범위와 잠재적 파급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AI는 단순히 노인이 이전에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는 노인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d. **인권적 목표**: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지향점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노인이 자신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 **인권적 시사점**:

인공지능은 노인이 배우고, 창작하며, 혁신하고, 일하며, 멘토링하고, 자원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장벽을 낮추고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킴으로써, AI는 노년기에 대한 전통적 가정을 훨씬 뛰어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AI가 노인을 단순

히 돌봄이나 지원의 수혜자로만 다루지 않고, 혁신가, 창작자, 리더, 멘토 및 기여자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발·이행·활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권적 접근 방식은 노인을 주로 취약성이나 의존성의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서사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AI는 기회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인간 발전을 도모하며, 노인이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향점을 추구하고, 지식과 경험을 기여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개발·이행·활용되어야 한다.

f. **해석적 질문**:

AI가 도입된 세상에서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권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g. **성찰**:

AI는 사회가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연장된 삶 속에서 지속적인 인간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권은 단순히 노인을 소외나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노인의 지향점과 잠재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창작하며, 주도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실현된다.

2.5 성찰 – AI 개발 및 이행을 위해 제기되는 인권적 과제

위에서 제시된 4가지 현실이 새로운 인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I가 연장된 삶의 과정에서 노인이 자신의 인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며 실현하는 맥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현실들은 AI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부응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 ✓ **노년의 다원성**: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의 다원성을 인식해야 함.
- ✓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삶의 궤적**: 종단적 데이터는 이러한 궤적에 대해 부분적인 이해만을 제공하므로 '종단적 인간 경험'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인권의 지속적인 실현을 지원해야 함.
- ✓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AI 기반 지원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노인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노인

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함.

✓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노인이 참여하고, 자신의 지향점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야 함.

3. AI 규범/지침 비교 분석

3.1 비교 분석 접근 방식

AI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노년기 인권 실현에 부합하는 규범적 토대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국제 및 지역 AI 규범/지침을 검토하였다:

-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유럽의회: AI·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아프리카연합: 대륙 AI 전략 (Contin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 아세안: AI 거버넌스 및 윤리 가이드 (Guide on AI Governance and Ethics)

이들 규범은 목적, 법적 지위, 지리적 적용 범위 및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윤리적 권고, 정부 간 원칙,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대륙 차원의 발전 전략, 실무적 거버넌스 지침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비교는 개별 규범의 우열을 가리거나 단일한 모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규범이 고유한 목적과 성격 내에서 제공하는 규범적 토대를 검토한다.

본 비교 분석은 다음 6가지 차원을 고려한다:

a. 목적
b. 참여국
c. 인권 보장 범주
d. 노인 및 노년에 대한 인식
e. 제2절에서 식별된 4가지 현실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
f. 미해결 과제

규범적 준비도는 '노년의 다원성',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삶의 궤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4가지 현실을 분석적 틀로 활용하여, 각 규범이 제공하는 토대와 이것이 노인에게 갖는 시사점이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지를 검토·평가한다.

본 비교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 규범별 분석 및 증거 기반 관찰 사항은 부록 A에 제시되어 있다.

3.2 규범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성격

5개 규범은 서로 다른 제도적·규범적 출발점에서 AI에 접근한다.

- UNESCO 권고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기반한 글로벌 윤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다자간 정책 지침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 OECD 권고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정부 간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 및 국제 협력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 유럽의회 프레임워크 협약은 AI 시스템 관련 활동이 기존의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 아프리카연합 전략은 인권 및 윤리적 안전장치를 통합하는 동시에, 포용적 사회경제적 발전, 역량 강화 및 혁신이라는 사람 중심의 포괄적 아젠다 내에 AI를 위치시킨다.
- 아세안 가이드는 보다 실무적인 지향성을 가지며, 위험 관리, 책무성, 데이터 거버넌스 및 AI 기반 의사결정에서의 인간 개입 등과 관련된 조직 차원의 실천적 거버넌스로 책임 있는 AI 원칙을 구체화한다.

이들 규범은 지리적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UNESCO는 회원국을 통해 글로벌 적용 범위를 가지며, OECD 권고는 OECD 회원국 및 수락국으로 확장된다. 유럽의회 협약은 유럽의회 회원국을 넘어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조약 체계이며, 아프리카연합과 아세안 지침은 각각 대륙 및 지역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유럽의회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규범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러한 차이는 비교 분석을 위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본 분석은 각 규범이 지닌 특정 목적, 범위 및 권한의 형태 내에서 제공하는 규범적 토대를 검토한다.

규범의 목적, 참여국 및 법적 성격에 관한 구체적 증거는 부록 A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3 인권적 토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5개 규범 모두 인권과 관련된 토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프레이밍, 범위 및 권한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 UNESCO는 존엄성,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 사생활 보호, 참여, 다원성, 포용성, 접근성, 투명성 및 책무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명시적인 인권적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 연구, 노동, 문화 및 인간 발전에 관한 정책적 공약을 포함한다.
- OECD 역시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인간 역량, 창의성, 포용적 성장, 기술, 고용 및 광범위한 혜택 공유에 관한 공약과 결합한다.
- 유럽의회 협약에서는 기존의 인권 의무가 AI 시스템 관련 활동을 평가하는 법적 기준이 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당 프레임워크는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 사생활 보호, 투명성, 감독 및 책무성을 포함하며, 이는 위험·영향 평가, 절차적 안전장치 및 구제 수단에 의해 뒷받침된다.
- 아프리카연합 전략은 비차별, 자율성, 사생활 보호 및 포용성을 평생학습, 참여, 혁신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결합하여,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광범위한 사람 중심의 발전 프레임워크 내에 내재화한다.
- 아세안은 독립된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지는 않으나, 인간 중심성, 공정성 및 형평성, 사생활 보호, 투명성, 책무성, 안전성, 인간 개입을 통해 인권 관련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노인 및 노년에 대한 인식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UNESCO는 연령과 노인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노인은 주로 돌봄, 지원 및 취약성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광범위한 발전적 조항 전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아프리카연합 전략은 비차별과 관련하여 연령을 명시적으로 식별하고 "고령자 및/또는 의존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AI 기반 기술을 언급하지만, 평생학습, 기술, 노동, 혁신 및 발전에 관한 광범위한 공약 전반에서는 노인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OECD 권고, 유럽의회 협약 및 아세안 가이드는 노인이나 노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노인은 보편적 보호 조치나 개인, 근로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과소대표 인구집단, 인구통계학적 범주, 취약계층 등 보다 포괄적인 범주를 통해 포괄된다. 특

히 유럽의회 협약은 장애인과 아동의 권리, 필요 및 취약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반면, 노인에 대해서는 이와 비교할 만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각 규범 내에서 식별된 구체적인 인권 조항 및 인식 형태는 부록 A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4 4가지 현실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

제2절에서 식별된 4가지 현실은 5개 규범 전반에서 확인되는 규범적 토대가 노년기에 발생하는 인권적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데 활용되었다. 비교 결과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각 평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 및 규범별 분석은 부록 A에 제시되어 있다).

현실 영역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노년의 다원성	평등, 비차별 및 다원성 관련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교차성 및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의 다원성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보편적 평등, 비차별 및 다원성 토대를 제공하나, 노년 내부의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암묵적인 수준에 머묾.	평등, 차별적 영향 및 교차적 특성에 대한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년 내부의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미발달 상태임.	명시적 연령 비차별을 포함한 포용 및 다원성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년 내부의 다원성은 미발달 상태임.	관련 공정성, 대표성 있는 데이터 및 인간 중심성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년 내부의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미발달 상태임.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삶의 궤적	광범위한 다부처/다자간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변화하는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에 따른 지속적인 권리 실현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관련 데이터, 추적성, 이해관계자 및 학제간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변화하는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대부분 미발달 상태임.	반복적인 위험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AI 영향에 대응할 수 있으나, 변화하는 인간의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광범위한 다부처/다자간, 사용자 중심 및 평생학습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변화하는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데이터 거버넌스,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가 변화하는 AI 효과를 다루고 있으나, 변화하는 인간의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가이드의 핵심 범주에서 벗어나 있음.
지원을 받	강력한 자율성 및 안전장	강력한 인간의 주체	자율성, 투명성, 이의 제	자율성 및 삶의 질을	인간 개입을 위한 실

현실 영역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으며 살아 가는 삶	치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보장 및 노인의 의사와 선호 존중을 위해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성, 감독, 투명성 및 이의 제기 가능성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인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 및 선호에 대한 적용은 추가적인 해석을 요함.	기 및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인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 및 선호를 중심에 두기 위한 추가적 해석이 필요함.	통한 명시적인 노년 관련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의사 및 선호, 그리고 지원과 대체의 경계는 미발달 상태임.	무적 메커니즘이 강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이 노인의 자율성,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 및 선호를 지원하도록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가능성을 품고 살아 가는 삶	강력한 참여 및 인간 발전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인의 지속적인 지향점, 기여 및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임.	인간 역량, 창의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인의 지속적인 지향점, 기여 및 미래 가능성에 대한 적용은 암묵적인 수준임.	권리 부합적 혁신 및 참여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노년기의 지속적인 지향점, 기여 및 자기 결정적 미래에 대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평생학습, 참여, 혁신 및 인간 발전을 위한 매우 강력한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광범위한 발전 기회가 노인에게 체계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음.	유익하고 인간 중심적인 AI를 위한 일반적 토대를 제공하나, 노인의 지속적인 지향점, 참여, 기여 및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에 대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4. 주요 분석 결과

비교 분석 결과, 현행 국제 및 지역 AI 규범들에는 노년기 인권 실현과 관련된 실질적인 토대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단순히 인권 원칙의 부재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원칙들이 노년의 현실에 충분히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5가지 주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4.1 인권 원칙과 기준이 노년의 현실에 아직 충분히 해석·적용되지 못함

검토된 규범들은 인권 실현과 관련된 토대를 포함하고 있다. 존엄성,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 사생활 보호, 참여, 인간의 주체성, 투명성 및 책무성은 규범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여러 규범이 위해로부터의 보호를 넘어 인간의 역량, 창의성, 학습, 노동, 혁신, 발전 및 웰빙까지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원칙들이 노년의 현실에 충분히 해석되고 적용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구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정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그 원칙의 실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지침만을 제공할 수 있다. 교차성 및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한 노년의 다원성 전반에 걸쳐 원칙 적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루지 않은 채 평등과 비차별이 인정될 수 있다. 연장된 삶 속에서 노인의 환경, 지향점 및 궤적이 변화함에 따른 인권의 지속적인 실현을 다루지 않은 채 인권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AI 활용 시 노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규정하지 않은 채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노인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향점을 추구하고, 기여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참여와 인간 발전이 지원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준비도는 단순히 관련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노인의 다원적이고 변화하는 삶의 환경 전반에 걸쳐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원칙들을 충분히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4.2 5개 AI 규범 전반에서 노인이 완전히 인식되고 고려되지 못함

인권이 노인에게 적용되기 위해 모든 조항에 노인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인권은 여전히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분석 결과, 5개 규범 전반에서 노인과 노년이 명시적으로 인식되는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UNESCO와 아프리카연합은 연령 또는 노인을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OECD 권고, 유럽의회 협약 및 아세안 가이드는 주로 보편적 보호 조치나 개인, 인구집단, 이해관계자 등 포괄적인 범주에 의존한다. 따라서 노인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의 해석 및 이행을 통해 이들의 특수한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명시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노년의 완전한 현실이 고려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인을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규범에서도 그 언급은 돌봄, 지원, 보건, 자율성, 삶의 질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맥락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노년의 중요한 차원이지만 노년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일부 규범은 교육, 평생학습, 노동, 창의성, 혁신, 참여, 기업가 정신, 문화 및 발전과 같은 영역에 관한 포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노인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노인은 5개 규범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그 인식이 노인이 자신의 인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며 실현하는 환경, 지향점 및 가능성의 전체 범주를 반드시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4.3 5개 AI 규범이 노년의 변화하는 삶의 궤적을 아직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함

비교 분석을 통해 5개 규범 전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토대들이 식별되었다. 여기에는 다부처/다자간 접근 방식, 데이터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사용자 중심 연구, 평생학습, 그리고 AI 시스템의 변화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이러한 토대는 중요하지만, 연장된 삶 속에서 노인 자신의 환경, 관계, 지향점, 역할 및 지원 필요성이 변화함에 따른 인권의 지속적인 실현을 실질적으로 다루지는 못한다.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AI 시스템의 생애주기나 AI의 변화하는 영향에 관한 조항은 인간 삶의 변화하는 궤적에 대한 관심과 동일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보건, 고용, 서비스 이용 또는 기타 영역에 관한 점점 더 상세하거나 종단적인 데이터는 개인 삶의 특정 측면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삶 전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궤적은 선형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이는 관계, 기회, 환경, 사회 경제적 여건, 예상치 못한 사건 및 개인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궤적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 스스로가 데이터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지식, 즉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 자신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자신의 우려 사항, 선호, 지향점 및 목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비교는 종단적 데이터(longitudinal data)와 '종단적 인간 경험(longitudinal human experience)' 사이의 중요한 구분을 강화한다. 규범들은 데이터 거버넌스, 협의 및 참여를 위한 관련 토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종단적 데이터 및 기타 영역별 데이터와 함께 노인의 변화하는 삶의 경험이 AI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 분석의 시사점은 연장된 삶을 위한 규범적 준비도가 단순히 데이터나 AI 영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실현하는 과정인 '변화하는 인간 경험'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다.

4.4 5개 AI 규범이 노년기 AI 기반 지원 환경에서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아직 완전히 다루지 못함

5개 규범은 AI가 지원의 일부로 활용될 때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토대를 포함하고 있다. 규범 전반에 걸쳐 존엄성과 자율성, 동의, 인간의 주체성,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의사결정이나 출력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 절차적 안전장치, 접근성, 그리고 사용자 권한 강화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아프리카연합 전략은 AI 기반 기술이 노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지원할 잠재력을 인식함으로써 노년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토대는 유의미하다. 그러나 비교 분석 결과, 규범들은 AI 기반 지원을 받는 노인의 관점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반 지원은 노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하며, 자신의 선호를 전달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AI가 필요 식별, 위험 평가, 권고사항 제시 또는 조치 개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은 노인 스스로 내릴 결정을 영향받게 하거나 대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AI의 의사결정과 인간의 의사결정 사이가 아니다. 이는 노인 자신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지원과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지원 사이의 구분이다. 규범 전반에서 식별된 안전장치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AI가 지원의 일부가 됨에 따라 그 경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혹은 노인의 의사와 선호가 중심에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완전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 분석의 시사점은, 기존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토대가 노인 자신의 의사결정을 점차 대체하기보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의사와 선호를 존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추가적인 해석과 적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4.5 5개 AI 규범이 노년의 지속적인 지향, 참여 및 기여를 아직 완전히 다루지 못함

5개 규범은 위해로부터의 보호와 AI 관련 위험 관리를 넘어서는 토대를 포함하고 있다. 규범 전반에 걸쳐 인간 역량, 교육 및 평생학습, 창의성, 노동, 혁신, 기업가 정신, 참여, 포용, 발전 및 웰빙에 관한 공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토대의 성격과 범위는 각 규범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아프리카연합 전략에서는 실질적인 발전적 토대가, UNESCO 및 OECD 권고에서는 중요한 촉진적 토대가 확인된다.

이러한 조항들은 AI와 관련된 규범적 토대가 오직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AI가 인간의 발전, 참여 및 역량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포괄한다.

그러나 비교 분석 결과, 이러한 광범위한 촉진적·발전적 토대들은 일반적으로 노인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규정되지 않는다. 규범의 다른 부분에서 노인이나 연령이 명시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그 인식이 학습, 노동, 창의성, 혁신, 참여 및 발전에 관한 조항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연장된 삶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노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향점을 발전시키고, 배우고, 일하고, 창작하고, 혁신하고, 참여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 분석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노인이 AI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가에 그치지 않고, 이들 규범 내에서 구상된 광범위한 기회들이 노년기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되는가이다.

따라서 비교 분석의 시사점은, 5개 규범이 인간 발전과 참여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노인이 연장된 삶 동안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지향점을 추구하고, 참여하며, 기여하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토대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직 완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4.6 종합 결과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규범적 포괄 범위(normative coverage)와 규범적 준비도(normative readiness) 사이의 격차를 가리킨다. 그 성격, 강도, 구체성 및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련 규범적 토대는 5개 규범 모두에서 식별 가능하다. 비교 분석은 관련 인권 원칙, 기준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존재 자체가 그것들이 노년의 현실에 충분히 해석되고 적용되었음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5개 규범 전반에 걸쳐, 노인은 완전히 인식되고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년의 변화하는 궤적은 아직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AI 기반 지원 환경에서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아직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년의 지속적인 지향, 참여 및 기여는 아직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결과는, 격차가 단순히 관련 규범적 토대의 존재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다원적이고 변화하는 현실 전반에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토대들이 충분히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가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질문은 현행 AI 규범들이 인권 관련 원칙, 기준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질문은 이러한 규범적 토대가 AI의 개발, 이행 및 활용에 있어 노인의 인권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5. 제언

분석 결과는 노년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를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AI 원칙 체계를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인권이 노년의 현실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그 과정에 누구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AI의 개발·이행·거버넌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5.1 AI 세상 속 노년의 다원적이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인권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

인권 원칙과 기준은 보편적 원칙이나 노인에 대한 단편적 가정에만 의존하기보다, 노년의 현실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 내부의 다원성, 연장된 삶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지향점(aspirations)·목표, AI가 지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그리고 노인이 지속적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창작하며, 참여하고, 기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AI가 노인의 삶의 맥락 속에 점차 깊이 내재화됨에 따라 기존 인권의 실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5.2 AI 세상에서 인권의 해석 및 적용을 형성하는 데 노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것

AI가 노년의 현실과 교차함에 따라 인권 실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노인이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한다. 노인의 참여는 단순히 데이터의 제공원이 되거나 AI 시스템, 정책, 거버넌스 접근 방식이 이미 개발된 이후에 의견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노인은 다양하고 축적된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반드시 추론되거나 타인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변화하는 우려 사항, 선호, 지향점 및 목표를 제시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참여는 단순히 포용성(inclusion)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연장된 삶의 다원적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5.3 인권적 해석을 AI 개발, 이행 및 거버넌스로 반영할 것

규범적 명확성이 향상되더라도 이것이 AI의 개발·이행·거버넌스 방식을 실질적으로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년의 현실과 참여에 기반한 인권적 해석은 설계 및 데이터 관행, 영향 및 위험 평가, 배포, 모니터링 및 검토,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을 포함한 관련 AI 프로세스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위해나 소외의 위험뿐만 아니라, AI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지,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참여와 가능성을 활성화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적 해석의 AI 실무 적용은 AI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와중에도 인권이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제언은 AI의 진화 속에서도 노인이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자신

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6. 결론

AI는 노인이 자신의 인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며 실현하는 맥락을 변화시키고 있다. 비교 분석 결과, 관련 규범적 토대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나, 노년의 다원성, 연장된 삶에 따른 변화하는 궤적, AI 기반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지향점·참여·기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단순히 AI 발전에 발맞추어 노인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제는 AI가 도입된 세상 속에서 노인이 연장된 삶 전체에 걸쳐 자신의 삶의 방식, 스스로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이 그 가능성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

부록 A. 국제 및 지역 AI 규범/지침의 비교 분석

A.1 분석적 틀

각 규범은 6가지 차원(목적, 참여국, 인권 보장 범주, 노인 및 노년에 대한 인식, 노년기 인권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 미해결 과제)에 걸쳐 검토된다.

각 차원에 대해 본 부록은 식별된 증거, 해당 증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규범 간 비교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 기반 관찰 사항을 유지하여 제시한다.

A.2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unesco.org/en/artificial-intelligence/recommendation-ethics)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1. 목적	**증거**: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기반한 글로벌 윤리 프레임워크. 가치와 원칙은 다부처 정책 실행 및 AI 생애주기 전반으로 구체화됨. **분석**: 단순한 고위급 원칙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 윤리 프레임워크와 비교적 상세한 정책 지침을 결합함.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기반한 AI 글로벌 윤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그 가치와 원칙을 다부처 정책 실행으로 구체화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2. 참여국	**증거**: 조약이 아닌 '권고' 형태로 UNESCO 회원국에 의해 채택됨. **분석**: 글로벌 적용 범위를 가지나 조약상의 의무를 창출하지는 않으며, 국내 입법·정책·제도적 조치를 통해 이행됨.	UNESCO 회원국 전반에서 국내 조치를 통해 이행되도록 의도된 글로벌 차원의 비구속적 규범임.
3. 인권 보장 범주	**증거**: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 공정성,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인간의 감독 및 결정,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책무성, 다원성 및 포용성, 접근성, 참여, 안전 및 보안, 지속가능성, 삶의 질. 정책 분야는 교육, 연구, 보건 및 사회적 웰빙, 문화, 소통, 경제 및 노동을 포함함. **분석**: 인권이 추론 수준이 아닌 명시적으로 규정됨. 보호적 권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포용, 교육, 발전, 삶의 질 등 촉진적 차원을 결합하여 정책 실행과 연계함.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를 중심으로 명시적인 인권적 토대를 제공하며, 보호적 권리와 더불어 다방면에 걸친 참여, 포용, 발전, 삶의 질에 관한 촉진적 공약을 결합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4. 노인 및 노년에 대한 인식	**증거**: 연령이 존엄성/평등 프레임워크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노인은 AI 지원 및 돌봄, 그리고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명시적으로 식별됨. 광범위한 조항들은 다원성, 접근성 및 기술과의 다양한 관계를 다룸. **분석**: 인식이 암묵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명시적임. 그러나 노인은 돌봄, 지원, 취약성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교육, 노동, 문화, 연구, 혁신 및 기여 영역에서는 명시적 노출이 적음.	연령과 노인을 인식하고 있으나, 본 권고의 광범위한 발전적 영역에 비해 돌봄, 지원 및 취약성 맥락에서 노인이 현저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5A. 규범적 준비도: 노년의 다원성	**증거**: 존엄성,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 다원성, 포용성, 접근성, 참여, 기술과의 다양한 관계. **분석**: 평등·비차별, 다원성, 포용성, 접근성, 참여를 통해 노인 내부의 다원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함. 이는 환경, 특성, 가치, 경험, 선택의 차이와 관련됨. 그러나 본 권고는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의 다원성과 관련하여 평등 및	다원성을 인식하기 위한 규범적 토대는 존재하나,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의 다원성 전반에 평등 및 비차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비차별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5B. 규범적 준비도: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궤적	**증거**: 보건, 교육, 노동, 연구, 문화, 참여, 지식의 다원성, 이해관계자 참여. **분석**: 연장된 삶 속에서 환경과 궤적이 변화함에 따른 인권의 지속적인 실현과 관련된 광범위한 다부처/다자간 토대를 제공함.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인식은 영역별 데이터를 넘어선 관점을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 그러나 본 권고는 연장된 삶 전반에 걸친 변화하는 궤적이나, 종단적 데이터 및 기타 영역별 데이터와 함께 노인의 삶의 경험, 우려 사항, 지향점, 목표가 AI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음.	변화하는 환경 전반에서 인권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한 관련 다부처/다자간 토대가 존재하나, 연장된 삶에 따른 변화하는 궤적과 종단적 인간 경험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발달하지 않음.
5C. 규범적 준비도: 지원을 받으며	**증거**: 자율성, 인간의 감독 및 결정, 비례성, 사생활 보호, 접근성, 보건 안전장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보건 맥락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AI 기반 지원에서의 자율성과 안전장치를 위한 규범적 토대가 존재하나, 지원이 노인의 삶을 주도하는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살아가는 삶	**분석**: 인간의 결정, 접근성, 비례성, 부당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보건 맥락에서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 등 AI 기반 지원 제공 및 자율성과 관련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함. 이는 노인이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도록 돕게 함. 그러나 AI가 지원의 일부로서 모니터링, 권고, 조치를 개시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의 의사와 선호가 중심에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 지침이 부족함.	해석이 필요함.
5D. 규범적 준비도: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증거**: 교육 및 학습, 과학 연구, 문화, 고용 및 노동에 관한 정책 공약 및 지침과 더불어 참여, 포용, 인간 발전, 삶의 질에 관한 광범위한 원칙. 이 조항들은 AI가 교육/지식 접근, 과학/창작 활동, 문화/경제적 삶 참여, 인간 발전 기회를 지원할 잠재력을 인식함. **분석**: 교육, 연구, 문화, 노동 전반에서 참여, 포용 및 지속적인 인간 발전을 위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함. 이는 노인이 지향점을 추구하고 지식과 경험을 기여하며 스	참여와 지속적인 인간 발전을 위한 규범적 토대가 존재하나, 이를 노인의 지속적인 지향점, 기여 및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 관련됨.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참여적 공약들이 연장된 삶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자, 창작자, 혁신가, 리더, 기여자인 노인에게 체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음.	
5. 종합 요약	**분석**: 4가지 현실 모두에서 관련 규범적 토대가 식별됨. UNESCO는 평등·비차별, 다원성·포용성, 다부처 인권 실현·참여, AI 기반 지원에서의 자율성·안전장치, 참여·지속적 인간 발전에 관한 실질적 토대를 제공함. 노인에 대한 적용은 돌봄, 지원, 취약성 맥락에서 가장 강함. 광범위한 규범적 토대를 노년 내부의 다원성, 변화하는 궤적, 자율성과 지원, 지속적 지향 및 기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됨.	UNESCO는 4가지 현실 모두와 관련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나 규범적 준비도는 불균등함. 노인에 대한 가장 강한 명시적 적용은 돌봄, 지원, 취약성 맥락에 머물러 있으며, 노년의 다원성, 변화하는 궤적, 지원 필요성, 가능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인권적 토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6. 미해결 과제	**분석**: UNESCO 권고는 4가지 현실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인권적 토대를 제공하고 노인을 명시적으로 인식함. 그러나 노인에 대한 명시적 다룸은 돌봄, 지원, 취약성 맥락에 집중됨. 평등·비차별, 참여, 교육, 노동, 연구, 문	주요 미해결 과제는 AI가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노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실현하는 방식에 점차 영향을 미침에 따라, UNESCO의 광범위한 인권적 토대가 노인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임.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화, 인간 발전에 관한 광범위한 공약이 다원적 환경, 변화하는 궤적, 지속적 지향점을 가진 노인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함. 마찬가지로 자율성, 인간의 감독, 접근성, 부당한 영향 방지,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지원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AI가 지원 및 의사결정에 개입할 때 노인의 의사와 선호를 중심에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다루지 못함.	

A.3 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 (OECD Recommend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1. 목적	**증거**: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정부 간 원칙 및 정부를 위한 정책 권고사항. **분석**: AI 행위자를 위한 가치 기반 원칙과 국가 정책 및 국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정부 간 원칙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제 협력에 관한 권고사항을 결합함.	
2. 참여국	**증거**: OECD 회원국 및 수락 협력국; 비구속적 권고. **분석**: 넓은 국제적 적용 범위를 가지며, 조약상의 의무보다는 국가 정책, 규제, 국제 협력을 통해 이행됨.	OECD 회원국 및 수락국을 통한 넓은 국제적 적용 범위를 가짐; 정치적 권위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3. 인권 보장 범주	**증거**: 인권과 민주적 가치, 존엄성, 자유와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 다원성, 공정성,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사회적 정의, 노동권, 인간의 주체성 및 감독,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안전·보안·견고성, 책무성 및 추적성, 포용적 성장, 인간 역량 및 창의성, 과소대표 인구집단, 기술·고용·기업가 정신 및 광범위한 혜택 공유. **분석**: 명시적인 보호적·촉진적 토대를 제공함. 원칙 중심의 구조는 UNESCO보다 간결하며 수락국 및 AI 행위자에게 더 많은 맥락적 해석의 여지를 남김.	존엄성, 자율성, 평등, 사생활, 주체성, 투명성, 책무성을 인간 역량, 창의성, 포용, 광범위한 혜택 공유에 관한 발전적 공약과 결합한 광범위하고 명시적인 인권 및 인간 중심 토대임.
4. 노인 및	**증거**: 노인 및 노년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음. 실질적	노인 및 노년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음. 이들은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노년에 대한 인식	인권 조항에 연령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음. 포괄적 범주로는 개인, 근로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과소대표 인구가 포함됨. **분석**: 노인은 보편적 원칙에 의해 포괄되나, 별도의 권리 주체 집단이나 원칙 해석의 특수한 맥락으로서 노년이 가시화되지는 않음.	보편적 보호 조치와 포괄적 범주에 포함되나, 원칙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맥락으로서 노년이 가시화되지는 않음.
5A. 규범적 준비도: 노년의 다원성	**증거**: OECD 원칙은 AI 행위자가 존엄성, 자율성, 사생활·데이터 보호, 비차별, 평등을 포함한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함. 또한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 다원성 인식, 편향 위험 대응 안전장치, 의도된 맥락에 적절한 데이터셋 활용, 과소대표되거나 불평등에 영향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주의를 촉구함. **분석**: 다원성을 인식하기 위한 보편적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인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으며,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의 다원성에 평등·비차별 공약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발전시키지 못함.	평등, 비차별, 다원성을 위한 보편적 토대가 존재하나,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의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암묵적인 수준에 머묾.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5B. 규범적 준비도: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궤적	**증거**: AI 생애주기 접근 방식을 취하며 데이터 품질/대표성, 데이터셋·프로세스 추적성, 학제 간 연구, 기술·교육 투자,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강조함. **분석**: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AI의 관련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개별 궤적이 변화함에 따른 인권의 지속적 실현이나, 종단적 데이터와 함께 노인의 삶의 경험, 우려, 지향점, 목표가 AI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음.	관련 토대는 존재하나, 연장된 삶에 따른 변화하는 궤적 전반에서의 인권의 지속적 실현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의 역할에 대한 적용은 대부분 미발달 상태임.
5C. 규범적 준비도: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증거**: 인간의 주체성과 감독을 강조하고, 투명성과 책임 있는 공개를 요구하여 사람들이 AI와 상호작용하는 시점을 이해하고 AI 결과를 이해·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AI 시스템을 재정의·수리·폐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상함. **분석**: 영향받는 주체가 AI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타인에 의한 감독과 영향받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	인간의 주체성, 감독, 이의 제기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존재하나, AI가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가 중심에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며, AI 기반 지원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의 의사·선호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음.	
5D. 규범적 준비도: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증거**: 신뢰할 수 있는 AI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웰빙에 기여하는 것으로 프레이밍함. 인간 역량 증대 및 창의성 향상 잠재력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 고용,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며 불평등을 줄이고 광범위한 혜택을 촉진하는 정책을 촉구함. **분석**: 인간 역량, 창의성, 경제·사회적 참여 기회 확장을 위한 강력한 발전적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인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회가 연장된 삶 전반으로 확장되거나 노인이 지속적 지향점을 추구하고 기여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방식은 발전시키지 않음.	인간 역량, 창의성, 포용적 성장, 경제·사회적 참여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존재하나, 노인의 지속적 지향점, 기여 및 미래 가능성에 대한 적용은 암묵적임.
5. 종합 요약	**분석**: 4가지 현실 모두와 관련된 실질적 규범적 토대를 제공함. 평등·비차별·다원성·공정성은 노년의 다원성에, 생애주기 접근·대표 데이터·추적성·이해관계자 대화는 변화하는 궤적	OECD 권고는 4가지 현실 모두와 관련된 실질적 보편 규범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인간 역량, 창의성, 포용적 성장에 강력한 공약을 포함함. 그러나 노인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에, 인간 주체성·감독·투명성·이의 제기는 AI 지원에, 인간 역량·창의성·포용적 성장·기술·고용·기업가 정신 공약은 가능성을 품은 삶에 강력한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인과 노년이 명시되지 않아 보편적 조항의 적용은 암묵적으로 남음.	이나 노년이 명시되지 않고 보편 원칙의 적용이 발전되지 않아 노인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는 주로 암묵적인 수준에 머묾.
6. 미해결 과제	**분석**: 인권, 평등, 인간 주체성, 감독, 투명성, 포용적 성장, 인간 역량에 관한 보편적 원칙을 수립하지만, 노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이로 인해 차별·편향 방지 조치가 노년 내부의 다원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생애주기·데이터·이해관계자 조항이 변화하는 궤적에 어떻게 대응하고 삶의 경험을 통합하는지, 인간 주체성/감독이 AI 지원 시 노인 자신의 의사·선호를 중심에 두는지, 기술·고용·기업가 정신·창의성 공약이 연장된 삶으로 의미 있게 확장되는지가 미해결 과제로 남음.	주요 미해결 과제는 AI가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권리 행사와 실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OECD의 보편적 원칙들이 노인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임.

A.4 유럽의회 AI·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https://www.coe.int/en/web/artificial-intelligence/the-framework-convention-on-artificial-intelligence)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1. 목적	**증거**: AI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AI 시스템 생애주기 내 활동이 기술 진보 및 혁신과 부합하는 동시에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술 중립적이며 새로운 인권을 창출하기보다 기존 인권 기준을 보완함. **분석**: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수립함. 목적은 기존 인권의 실질적 내용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동이 각 당사국에 적용되는 기존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AI 시스템 관련 활동이 기술 중립적이고 혁신과 부합하는 동시에 기존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2. 참여국	**증거**: 2024년 9월 5일 서명 개방. 유럽의회 회원국, 작성에 참여한 비회원국, 유럽연합(EU)에 개방되며 발효 후 기타 비회원국의 가입 조항을 둠. **분석**: 유럽을 넘어선 지리적 적용 잠재력을 가짐. 발효에는 최소 3개 유럽의회 회원국을 포함한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함.	EU 및 자격 있는 비회원국의 참여를 포함하여 유럽의회 회원국 범주를 넘어설 잠재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임.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3. 인권 보장 범주	**증거**: 인권이 법적 토대를 형성함. 실질적 원칙은 인간 존엄성 및 개인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및 감독, 책무성 및 책임, 신뢰성, 안전한 혁신을 포함함. 구제 수단 및 절차적 안전장치(정보 접근, AI 기반 결정 이의 제기 기회, 불복 메커니즘, AI 상호작용 시 고지)를 수립함. AI 활동이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적 위험·영향 평가와 예방·완화 조치를 요구함. **분석**: 인권이 단순 윤리적 참고점이 아닌 법적 평가 기준임. 기존 국제 인권 의무 내용을 보존하면서 실질 원칙과 이행 메커니즘을 결합함.	존엄성, 자율성, 평등·비차별, 사생활, 투명성, 감독, 책무성, 구제 수단, 절차적 안전장치를 포괄하며 위험·영향 관리 의무로 뒷받침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기존 인권법을 AI에 적용함.
4. 노인 및 노년에 대한 인식	**증거**: 노인이나 노년을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음. 그러나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명시적 인구집단 특정 조항(제18조)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특수한 필요·취약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평등 조항은 개인 특성, 환경, 집단 자격과 관련된 차별적 영향을 규정함. **분석**: 완전히 인구 중립적이지는 않으며 인구 특정 의무가	노인과 노년이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음. 장애인과 아동의 특정 권리·필요·취약성 고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노인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권 보호에 의존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 노인은 평등·비차별 등 보편적 인권 의무를 통해 보호받으나 비교할 만한 명시적 조항은 받지 못함.	
5A. 규범적 준비도: 노년의 다원성	**증거**: 존엄성, 개인 자율성, 평등·비차별 존중을 요구함. 평등 프레임워크는 차별적 영향을 인식함. 설명서(Explanatory Report)는 교차적 개인 특성과 구조적·역사적 불평등의 관련성을 인정함. 영향을 받는 관점이 평등 조치를 안내하고 공공 협의가 다양한 견해를 통합함. **분석**: 피당사자 집단을 단질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원성과 차별적 영향을 인식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인이 명시되지 않으며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 다원성에 평등·비차별이 적용되는 방식은 발전시키지 않음.	평등, 비차별, 차별적 영향(교차적 특성 및 구조적 불평등 인식 포함)에 대한 실질적 법적 토대가 존재하나, 노년 내부의 다원성과 축적된 삶의 경험에 대한 적용은 미발달 상태임.
5B. 규범적 준비도: 연장된 삶	**증거**: AI 활동이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에 대한 위험·영향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과 사회적·경제적·법적·윤리적·환경적 함의에 대한 공공 논의 및	반복적 위험·영향 평가 및 협의는 AI의 변화하는 영향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연장된 삶에 따른 변화하는 궤적 전반에서의 인권의 지속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과 변화하는 궤적	다자간 협의를 요구함. '생애주기' 언급은 개인의 생애 과정이 아닌 AI 시스템의 생애주기(설계~배포·폐기)를 의미함. **분석**: 반복적 평가/협의는 변화하는 AI 영향 대응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개별 궤적이 변화함에 따른 인권의 지속적 실현이나 노인의 삶의 경험이 AI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음.	적 실현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5C. 규범적 준비도: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증거**: 개인 자율성을 보호하고 투명성·감독 요건을 수립함. AI 시스템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영향받는 자에게 제공(결정 이의 제기에 충분한 정보 포함)하도록 함. 이의 신청 메커니즘, 절차적 보장, AI 상호작용 시 고지 의무를 둠. **분석**: AI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지원/영향을 줄 때 상당한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함. 그러나 타인에 의한 감독과 영향받는 자의 자율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AI 지원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선호를 중심에 두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음.	자율성, 투명성, 이의 제기,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토대가 존재하지만, AI가 지원의 일부로 활용될 때 특히 노인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 선호가 중심에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5D. 규범적 준비도: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증거**: 인권 보호가 기술 진보·혁신과 부합하도록 도모함. 안전한 혁신 조항은 적절한 안전장치 하에 AI 개발·실험·테스트를 위한 통제된 환경을 허용함. 공공 협의 및 디지털 리터러시 조치는 참여 기준을 제공함. **분석**: 권리 부합적 혁신·참여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UNESCO, OECD와 달리 교육, 노동, 창의성, 기업가 정신, 인간 역량, 지속적 기여에 관한 명시적 발전 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이는 조약 목적과 부합하지만 노인의 지향점 추구 및 미래 형성을 돕는 토대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임.	권리 부합적 혁신과 참여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나, AI가 노인의 지속적인 지향점, 기여, 미래 형성 능력을 활성화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5. 종합 요약	**분석**: 존엄성, 개인 자율성, 평등·비차별, 투명성, 절차적 안전장치, 구제 수단, 위험·영향 평가, 책무성을 통해 4가지 현실과 관련된 강력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토대를 제공함. 차별적·교차적 영향 인식은 다원성에 유용한 토대임. 반복적 위험 평가는 변화하는 AI 영향에 대응하나 변화하는 인간 궤적을 다루지는 않음. 노인이 명시되지 않으며, AI 지원 시 자율성 요구사항을 완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지속적 인간	4가지 현실 모두와 관련된 강력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인이 명시되지 않고 보편적 의무가 변화하는 궤적, AI 지원, 지속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는 주로 해석에 의존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발전에 대한 명시적 강조가 적음.	
6. 미해결 과제	**분석**: 실질적 내용을 적용 가능한 국제/국내 인권법에 맡기면서 기존 인권 의무와의 일치성을 요구함. 이로 인해 본 협약 자체가 특정 인구나 환경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 해석이 특히 중요해짐. 노인은 제18조의 장애인/아동과 같은 인구 특정 대우를 받지 못함. 평등 조항은 차별적 영향 대응 토대를 제공하나 노년 내부 다원성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반복적 위험 평가 요건은 개별 궤적 진화보다는 AI 활동의 영향 변화에 관한 것임. 자율성·투명성·감독·절차적 안전장치는 AI 지원 시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 선호가 어떻게 중심에 남는지 완전히 규정하지 못함. 안전한 혁신·참여·디지털 리터러시 조치는 노년기 지속적 지향, 기여, 인간 발전에 대한 지침이 제한적임.	주요 미해결 과제는 실질적 해석을 기존 인권법에 의존함에서 비롯됨: 노인이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의 환경, 지향점, 지원 필요성, 가능성이 연장된 삶 전반에 걸쳐 변화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노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A.5 아프리카연합 대륙 AI 전략 (African Union Contin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https://au.int/en/documents/20240809/continental-artificial-intelligence-strategy)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1. 목적	**증거**: 아프리카 중심적, 발전 지향적, 사람 중심적 전략. 위험과 위해를 관리하면서 아젠다 2063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추진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5대 중점 분야(혜택 활용, 역량 구축, 위험 대응, 투자 촉진, 협력 도모) 및 15개 행동 분야를 둠. **분석**: 위험 관리나 법적 준수에 주로 지향된 규범과 달리, 윤리적·인권적 안전장치를 내재화하면서 AI를 사회경제적 전환, 문화적 부흥, 포용적 발전의 수단으로 명시적 위치시킴.	윤리적·인권적·안전·거버넌스 위험에 대응하고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포용적 사회경제적 발전, 문화적 부흥, 아젠다 2063 추진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아프리카 중심의 발전 지향적 전략을 수립함.
2. 참여국	**증거**: 2024년 7월 AU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됨. 55개 AU 회원국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 AI 전략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개발·이행할 것을 촉구함. **분석**: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대륙 차원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임. 이행은 AI 준비도가 다른 국가들의	아프리카연합 55개 회원국을 위한 대륙 전략임. 비구속적이며 다양한 국가 맥락에서 국가 AI 전략, 정책, 규제, 역량 구축을 안내하도록 의도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국가 전략, 정책, 규제, 제도적 정비에 실질적으로 의존함.	
3. 인권 보장 범주	**증거**: 지도 원칙 중 하나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으로, AI 생산·개발·활용·평가가 아프리카 헌장 및 국제 인권법상 권리와 성평등, 존엄성을 옹호할 것을 요구함. 기타 원칙으로 사람 중심 AI, 포용 및 다원성, 비차별, 평화와 번영, 윤리와 투명성, 기술 및 공공 인식이 있음. 사생활 보호, 편향·차별, 정보 완전성, 자유·자율성, 접근성, 영향 평가, 평생학습, 참여, 혁신, 포용적 발전을 다룸. **분석**: 인권이 명시적이며 포괄적 발전 프레임워크 내에 내재화됨. 위해로부터의 보호와 웰빙, 포용적 성장, 기술, 혁신, 참여, 사회경제적 기회에 대한 적극적 공약을 결합함.	비차별, 사생활, 자율성, 포용성, 위해 방지를 웰빙, 평생학습, 참여, 혁신, 사회경제적 발전과 결합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람 중심 발전 전략 내에 인권과 인간 존엄성 토대를 내재화함.
4. 노인 및 노년에 대	**증거**: '포용 및 다원성' 원칙 내에서 연령이 금지된 차별 사유로 명시됨. 보건 분야에서 AI 로봇이 "고령자 및/또는 의존자"와 장애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연령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고령자 및/또는 의존자"의 자율성·삶의 질을 지원하는 AI를 언급함. 그러나 그 외 교육, 기술, 노동, 혁신, 참여, 발전에 관한 전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한 인식	있다고 언급함. 교육, 노동, 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 시민 참여, 연구 조항에서는 노인이 유사하게 식별되지 않음. 여성, 청년, 아동, 장애인에게 현저히 더 많은 인구 특정 주의를 기울임. **분석**: 연령이 보호 특성으로서, 그리고 자율성·삶의 질 사례로서 명시적으로 가시화됨. 그러나 명시적 인식은 제한적이며 발전적 비전 전반보다는 보건 및 지원에 주로 집중됨.	략의 광범위한 조항에서는 노인이 대부분 부재함.
5A. 규범적 준비도: 노년의 다원성	**증거**: 포용 및 다원성 원칙이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아프리카 민족, 문화, 언어, 환경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AI를 촉구함. 사람 중심 접근, 고품질·다양한 데이터셋, 소외/불평등 심화 방지 조치, 영향 평가, 사용자 중심 연구가 차별적 환경 인식을 위한 추가 토대를 제공함. **분석**: 평등, 비차별, 다원성 인식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며 연령을 명시하여 인구 중립적 접근보다 나아감. 그러나 노년 내부의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	명시적 연령 비차별, 포용, 다원성, 사람 중심 AI를 통해 실질적 규범 토대가 존재하나, 교차적 차이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의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미발달 상태임.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험에 공약들이 적용되는 방식은 발전시키지 못함.	
5B. 규범적 준비도: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궤적	**증거**: 보건, 교육, 노동, 공공서비스, 기술, 연구, 문화, 경제발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다부처 범위를 가짐. 다양한 데이터셋, 사용자 중심 연구, 다자간 대화, 평생학습을 진흥함. 아프리카 주민, 사회, 노동시장, 가치, 미래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AI 영향 평가를 촉구함. **분석**: 다부처/사용자 중심 지향은 삶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은 지속적 발전을 인식함. 그러나 단·중·장기 평가 대상은 개인의 삶의 궤적이 아닌 AI의 변화하는 영향임. 환경·관계·지향점·지원 필요성이 변화함에 따른 인권의 지속적 실현이나 삶의 경험이 AI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음.	광범위한 다부처, 사용자 중심, 평생학습 토대가 존재하지만, 연장된 삶에 따른 변화하는 궤적 전반에서의 인권의 지속적 실현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발달하지 않음.
5C. 규범적 준비도: 지원을 받	**증거**: AI 로봇이 "고령자 및/또는 의존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지원할 잠재력을 명시적으로 인식함. 자유와 자율성, 접근성, 사생활, 책임 있는 AI, 사용자 권한 강화,	AI 기반 지원에서 자율성과 삶의 질을 통한 명시적인 노년 특정 토대를 제공하지만, 지원이 대칭으로 변하기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으며 살아 가는 삶	환자 돌봄에서 알고리즘 의존에 대한 우려를 다룸. **분석**: 노인 특정적 증거를 제공하며 AI 지원에 직접적 토대를 부여함. 그러나 자율성과 권리 기반 지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함. 노인의 정보 이해 및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선호 중심 유지, 지원과 당사자 대체의 구분 등에 관한 지침이 제한적임.	선호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 해석이 필요함.
5D. 규범적 준비도: 가능성을 품고 살아 가는 삶	**증거**: 포용적 성장, 사회경제적 전환, 혁신, 고용, 기업가정신, 연구, 기술, 평생학습, 창의성, 공공 참여, 문화적 부흥을 발전 아젠다의 중심에 둠. 위해 방지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AI 활용 기회와 역량 구축을 진흥함. **분석**: 참여, 지속적 인간 발전, 역량 확장을 위한 매우 강력한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비전은 청년, 여성, 미래 노동력, 스타트업, 일반 인구와 더 명시적으로 연계됨. 평생학습 공약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지속적 학습자, 기업가, 연구자, 혁신가, 리더, 기여자로 명시적 위치를 얻지 못함.	참여, 평생학습, 혁신, 기업가 정신, 인간 발전을 위한 매우 강력한 규범 토대가 존재하지만, 노인의 지속적 지향점, 기여, 미래 형성 능력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임.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5. 종합 요약	**분석**: 명시적 인권 공약, 연령 비차별, 사람 중심 발전, 포용·다원성, 사용자 중심 연구, 평생학습, 혁신, 참여를 통해 4가지 현실과 관련된 실질적 토대를 제공함. 자율성/삶의 질과 관련된 노인 직접 인식은 지원에 강한 출발점을, 넓은 발전 지향성은 가능성에 강한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인에 대한 명시적 적용은 불균등함. 노년 내부 다원성 미발달, 변화하는 인간 궤적/인간 경험 미다룸, 지원 시 의사·선호 중심 유지 미확립, 광범위한 발전 공약의 노인 확장 미흡 등이 나타남.	AU 전략은 연령 비차별, 사람 중심 발전, 평생학습, 혁신, 참여에 강점을 가지며 4가지 현실 모두와 관련된 실질적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인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는 불균등함: 명시적 노인 인식은 보건/지원에 집중되며, 광범위한 인권·발전 공약이 노년의 다원성, 변화하는 궤적, 지속적 지향/기여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음.
6. 미해결 과제	**분석**: 명시적 인권 토대, 연령 차별 금지, 강력한 발전 비전을 자율성/삶의 질 측면의 노인 명시적 인식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독특함. 남은 과제는 관련 토대의 부재보다는 보건/지원을 넘어 노인에게 적용되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임. 다원성/포용 공약이 교차적 다원성을 다루지 못하고, 다부처/장기 접근이 궤적 진화 및 인간 경험 반영을 확립하지 못하며, 자율성 조항이 AI 지원 시 정보에 입각한 결정 및 의사·선호 존중을 완전히 다루지	주요 미해결 과제는 전략의 강력한 인권·발전 토대(연령 비차별 및 지원 측면 노인 인식 포함)가 AI가 노인의 참여, 권리 실현, 기회에 점차 영향을 미침에 따라 노인에게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임.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못함. 평생학습·기술·기업가 정신·혁신 공약이 노인에게 체계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며 청년·여성·아동·장애인 중심 강조로 인해 노인의 AI 연구·이행·정책 참여 방식이 미해결로 남음.	

A.6 아세안 AI 거버넌스 및 윤리 가이드 (ASEAN Guide on AI Governance and Ethics)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4/03/ASEAN-for-Business-Bulletin-March-2024.pdf?utm_source=chatgpt.com)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1. 목적	**증거**: 상업적·비군사적/양용 맥락에서 전통적 AI를 설계·개발·배포하는 아세안 내 조직들을 위한 실무적 비구속적 자원. 지역적 조율 및 상호운용성을 도모하고 정부에 대한 국가/지역 차원 권고사항을 제시함. 내부 거버넌스, AI 증강 의사결정에서의 인간 개입 수준, 운용 관리, 이해관계자 상호작용을 다룸. **분석**: 아세안의 독자적 기여는 법적·규범적이라기보다 운	아세안 전반의 지역적 조율과 책임 있는 AI 도입을 도모하면서, AI를 설계·개발·배포하는 조직들을 위한 실무적이고 비구속적인 거버넌스 지침을 제공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용적임: 책임 있는 AI 원칙을 조직의 거버넌스 실천으로 구체화함.	
2. 참여국	**증거**: 지역적 아세안 규범으로 개발됨. (2025년 10월 동티모르 가입 후) 현재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비구속적이며 조약 의무 창출보다는 지역 내 조직과 정부를 지원하도록 의도됨.	아세안 11개 회원국 전반에 적용 가능한 지역적 비구속적 지침으로, 법적 의무 창출보다는 조직 실천 및 지역 정책 조율을 지원하도록 의도됨.
3. 인권 보장 범주	**증거**: 7대 지도 원칙(인간 중심성, 공정성 및 형평성, 사생활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책무성 및 진실성, 견고성 및 신뢰성, 보안 및 안전). 인간 중심성은 인간 중심적 가치 존중과 웰빙 추구를 요구함. 공정성은 인구통계 전반에서 차별적/불공정한 영향의 증폭을 방지하고 다원적·대표성 있는 데이터셋 활용을 요구함. 거버넌스 조치를 통해 실천화됨. **분석**: UNESCO나 유럽의회처럼 인권을 공식 법적 토대로 프레이밍하지는 않음. 대신 인간 중심성, 공정성, 사생활, 책무성, 투명성, 안전, 인간 개입을 통해 권리 관련 보호	인간 중심성, 공정성·형평성, 사생활, 투명성, 책무성, 안전, 인간 개입을 통해 중요한 인권 관련 보호 조치를 내재화하지만, 명시적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거나 특정 권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조치를 내재화함. 주로 운용 및 거버넌스 지향적임.	
4. 노인 및 노년에 대한 인식	**증거**: 2024년 가이드는 지도 원칙이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노인이나 노년을 인구 집단으로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음. 취약한 개인, 다양한 인구통계, 사용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언급함. 공정성 조항은 인구통계 전반의 차별적 영향 방지 및 대표 데이터셋을 장려함. **분석**: 노인은 보편적/인구통계적 범주에 속할 수 있으나, AI 설계·배포·인권 해석의 구체적 맥락으로서 노년이 가시화되지는 않음. 이는 UNESCO 및 AU와 대비됨.	노인과 노년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음. 취약한 개인, 인구통계, 사용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포괄될 수 있으나, 가이드 적용의 별도 맥락으로서 노년이 가시화되지는 않음.
5A. 규범적 준비도: 노년의 다원성	**증거**: 인간 중심성, 공정성·형평성, 다원적·대표성 데이터셋, 인구통계 전반의 차별적 영향 방지, 이해관계자 상호작용, 위험 평가. **분석**: 차별적 효과 인식 및 인구통계적 편향 방지를 위한 관련 실무 토대를 제공함. 그러나 노년 내부의 이질성, 서로 다른 가치나 기술 선호도, AI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하는	공정성, 대표 데이터, 인간 중심성을 통한 관련 실무 토대가 존재하나, 노년 내부의 다원성과 서로 다른 환경·가치·선호는 구체적으로 해석되지 않음.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노인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 등은 탐구하지 않음.	
5B. 규범적 준비도: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궤적	**증거**: AI 생애주기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진실성, 위험 평가, 이해관계자 소통, 지속적 조직 거버넌스. **분석**: 생애주기 동안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운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시간에 따른 인간 삶의 궤적에 대해서는 실질적 토대를 거의 제공하지 못함. 종단적 인간 경험이나 노인의 변화하는 지향점·우려·목표가 데이터 중심 평가를 보완하는 방식은 다루지 않음.	AI 생애주기 및 데이터 거버넌스 토대가 존재하지만, 변화하는 노년기 궤적과 종단적 인간 경험은 가이드의 실질적 범주 밖에 위치함.
5C. 규범적 준비도: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증거**: 위험에 근거하여 AI 증강 의사결정에서의 적절한 인간 개입 수준(Human-in-the-loop, Human-over-the-loop, Human-out-of-the-loop)을 결정하는 것을 주요 요소로 둠. 인간 중심성은 취약한 개인의 착취 방지를 주의시킴. **분석**: AI 기반 지원과 밀접히 관련되나, 본 프레임워크는 AI 위험 관리에 필요한 인간 개입의 양과 형태에 주로 집중함. 지원받는 노인의 주체성과 전문가/조직/타인에 의한	AI 증강 의사결정에서의 인간 개입에 관한 강력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지만, '인간 개입'이 단지 또 다른 인간 결정권자를 끼워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의 주체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범적 해석이 필요함.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감독을 구분하지 못하며, 지원 대 대체, 지원된 자기결정권 등은 발전시키지 않음.	
5D. 규범적 준비도: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증거**: 인간 중심성은 인간 사회와 웰빙을 위한 혜택을 추구하며, 신뢰 구축 및 책임 있는 AI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함. 그러나 포커스는 주로 책임 있는 조직 배포, 위험 완화, 거버넌스에 있음. **분석**: UNESCO, OECD, AU 전략에 비해 교육, 평생학습, 창의성, 고용, 기업가 정신, 기여, 지속적 인간 발전에 관한 실질적 지침이 적음. 가능성 차원은 명시적 서술보다는 책임 있는 도입 내에 주로 암묵적으로 존재함.	유익하고 인간 중심적인 AI를 위한 일반적 토대를 제공하지만, 노년기 지속적 학습, 창의성, 기여, 인간 발전을 돕는 AI에 대한 규범적 지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5. 종합 요약	**분석**: 공정성, 대표 데이터셋, 위험 평가, 인간 개입과 관련하여 유용한 실무적 메커니즘을 제공함. 이는 운용상 다원성과 AI 지원 측면을 도울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조직 거버넌스 규범이고 노인에 대한 명시적 인식이 없어 변화하는 궤적과 가능성을 품은 삶은 규범적 발전이 상대적으	공정성, 대표 데이터, 위험 평가, 인간 중심성, 구조화된 인간 개입을 통해 관련 실무 거버넌스 토대를 제공함. 노인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노인이 명시되지 않고, 변화하는 삶의 궤적 주의가 적으며, 인간 개입이 노인 권리주체의 주체성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고, 지속적 인간 발전·기여가

차원	식별된 증거 및 분석	증거 기반 관찰 사항
	로 적음.	암묵적으로 남음.
6. 미해결 과제	**분석**: 공정성/대표 데이터 요건이 노년 내부 다원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AI 생애주기 거버넌스가 데이터 의존을 넘어 노인의 변화하는 삶의 경험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인간 개입 처방 시 누구의 주체성이 보호되는가? 인간 중심성이 노인의 지속적 학습, 창의성, 기여,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포괄해야 하는가? 노인이 조직 거버넌스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실무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가장 강점을 보이며, 미해결 과제는 프로세스가 특정 권리주체/맥락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규범적 해석 부족에서 주로 비롯됨.	핵심 미해결 과제는 가이드의 실무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인간 중심성, 공정성, 인간 개입이 변화하는 노년의 현실 전반에서 노인을 위한 실질적 인권 결과로 번역되도록 할 것인가임.

A.7 규범 간 비교 매트릭스 (Cross-Instrument Comparative Matrix)

차원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1. 목적	인권 원칙과 다부처 정책 지침을 결합한 글로벌 윤리 프레임워크.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AI를 위한 정부 간 원칙 및 정책 프레임워크.	AI 생애주기 활동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프레임워크.	AI 기반 전환과 인권·윤리·거버넌스 안전장치를 결합한 아프리카 중심 발전 전략.	책임 있는 AI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실무적 조직 거버넌스 지침.
2. 참여국	글로벌 차원의 비구속적 UNESCO 권고.	OECD 회원국 및 수락 협력국 대상 비구속적 권고.	유럽 외 지역 참여가 가능한 구속력 있는 조약 프레임워크 (미발효).	AU 회원국 대상 대륙 차원의 비구속적 전략 (주로 국가 조치 통해 이행).	아세안 회원국 전반의 지역적 비구속적 지침.
3. 인권 보장 범주	광범위하고 명시적임. 보호적 권리와 참여, 포용, 발전, 삶의 질 공약을 결	광범위하고 명시적임. 존엄성, 자율성, 평등, 사생활, 주체성을 역	법적으로 근거하고 명시적임. 기존 인권이 법적 기준이 되며 안전장치, 구제 수단,	명시적이며 발전 지향적임. 인권과 존엄성이 사람 중심 발전, 포용, 웰빙,	명시적 인권 기반이라기보다는 인권 관련적임. 인간 중심성, 공정성, 사생

차원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합함.	량, 창의성, 포용, 혜택 공유와 결합함.	위험 평가, 책무성으로 뒷받침됨.	혁신에 내재화됨.	활, 투명성, 책무성, 안전, 인간 개입이 보호를 제공함.
4. 노인 및 노년에 대한 인식	명시적임. 연령과 노인이 인식되나, 노인의 가시성은 돌봄, 지원, 취약성에 집중됨.	명시적이지 않음. 노인은 보편적 보호에 포괄되나 노년이 별도 맥락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음.	명시적이지 않음. 보편적 권리가 적용되며, 아동과 장애인은 명시적 인식이 제공되나 노인은 없음.	명시적이나 제한적임. 비차별에서 연령이, 자율성/삶의 질과 관련하여 "고령자"가 주로 보건/지원에서 식별됨.	명시적이지 않음. 노인은 포괄적 인구통계, 취약계층, 이해관계자 범주에 속할 수 있음.
5. 노년기 인권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	실질적이나 불균등함. 4가지 현실 전반에 관련 토대가 존재하나, 가장 강한 명시적 적용은 돌	실질적이나 주로 암묵적임. 강력한 보편적 토대가 현실 전반에 적용되나 노인 가시성	강력한 법적 구속력 토대이나 해석에 의존함. 권리 보호, 안전장치, 책무성에 특히 강하나 변화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히 발전 지향적이나 불균등함. 명시적 연령 비차별 및 노인 인식과 더불어 전략	유용한 실무 토대이나 규범적 해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변화하는 궤적, 노인 주체성,

차원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봄/지원에 있으며 다원성, 궤적, 가능성에 추가 해석이 필요함.	및 해석이 제한적임.	궤적, 지원 대 대체, 긍정적 인간 발전에 덜 발달함.	의 넓은 학습·혁신·발전 아젠다가 노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됨.	지속적 인간 발전보다 거버넌스 프로세스, 공정성, 인간 개입에 더 강함.
6. 미해결 과제	변화하는 노년의 현실 전반에서 광범위한 보편 원칙이 어떻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하는가?	강력한 보편 원칙이 노년 특정적 해석과 이행으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구속력이 있으나 주로 인구 중립적인 의무가 노년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	강력한 인권 및 발전 공약이 노인의 변화하는 궤적, 주체성, 기여 전반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가?	실무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노인을 위한 실질적 인권 결과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A.7.1 4가지 현실에 대한 규범적 준비도 (Normative Readiness Across the Four Realities)

현실 영역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노년의 다원성	실질적인 평등, 비차별, 다원성 토대를 제공함; 교차성 및 축적된 삶의 경험을 포함하여 노년 내부 다원성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강력한 보편적 평등, 비차별, 다원성 토대를 제공함; 노년 내부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암묵적으로 남음.	평등, 차별적 영향, 교차적 특성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토대를 제공함; 노년 내부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미발달 상태임.	명시적 연령 비차별을 포함한 강력한 포용 및 다원성 토대를 제공함; 노년 내부 다원성은 미발달 상태임.	관련 공정성, 대표 데이터, 인간 중심성 토대를 제공함; 노년 내부 다원성에 대한 적용은 미발달 상태임.
연장된 삶과 변화하는 삶의 궤적	광범위한 다부처/다자간 토대를 제공함; 변화하는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에 따른 지속적인 권리 실현은 실질적으로	관련 데이터, 추적성, 이해관계자, 학제 간 토대를 제공함; 변화하는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대부분 미발달	반복적 위험/영향 평가가 변화하는 AI 영향에 대응할 수 있으나, 변화하는 인간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광범위한 다부처, 사용자 중심, 평생학습 토대를 제공함; 변화하는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모니터링, 위험 평가가 변화하는 AI 효과를 다루나, 변화하는 인간 궤적 및 종단적 인간 경험은 가이드의 핵심 범주 밖에

현실 영역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다루어지지 않음.	상태임.	음.	다루어지지 않음.	위치함.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강력한 자율성 및 안전장치 토대를 제공함;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보장 및 노인의 의사·선호 존중을 위해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강력한 인간 주체성, 감독, 투명성, 이의 제기 가능성 토대를 제공함; 노인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 선호에 대한 적용은 추가적 해석을 요함.	자율성, 투명성, 이의 제기,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토대를 제공함; 노인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 선호를 중심에 두기 위한 추가적 해석이 필요함.	자율성과 삶의 질을 통한 명시적 노년 토대를 제공함;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의사·선호, 지원과 대체의 경계는 미발달 상태임.	인간 개입을 위한 강력한 실무 메커니즘을 제공함; 노인의 자율성, 정보에 입각한 결정, 의사·선호를 지원하도록 추가적 해석이 필요함.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삶	강력한 참여 및 인간 발전 토대를 제공함; 노인의 지속적인 지향점, 기여, 미래 형성 능	인간 역량, 창의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제공함; 노인의 지속적 지향점, 기여, 미래	권리 부합적 혁신 및 참여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함; 노년기 지속적 지향점, 기여, 자기 결정	평생학습, 참여, 혁신, 인간 발전을 위한 매우 강력한 토대를 제공함; 광범위한 발전 기회	유익하고 인간 중심적인 AI를 위한 일반적 토대를 제공함; 노인의 지속적 지향점, 참여, 기여, 미래

현실 영역	UNESCO	OECD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EAN)
	력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임.	가능성에 대한 적용은 암묵적임.	적 미래에 대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가 노인에게 체계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음.	형성 능력에 대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